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6호 [루체 제26030호] 주제 107 (2018)년 6월 5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식 해안도시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여 주체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힘 있게 떨치자

군민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다음에 태양절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군민궐기모임이 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유희근대장, 김수길동지, 비롯한 무력기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수길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꿈없는 로고와 혁신의 날과 밤을 이어 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훔먼지 자욱한 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고무적 힘을 안겨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기적에서 더 큰 기적으로 한계를 보르고 출발음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포다시 새로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다음에 태양절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막사복무하는 것을 혁명적 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끝 승리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힘 있게 파시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험난하게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보고자는 모든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결심을 반드시 길에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철태불변의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고

같마전역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해 전진 또 전진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 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는 한편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비롯한 집단적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라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본분으로

건설의 둘째구를 앞장에서 열어 제기며 건설물마다 당의 의도가 가장 철저히,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 서 설계와 시공기준, 건설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축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련관단위 일군들이 싸우는 전선에 탄약을 보장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마감건체품들을 제때에 보내줄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세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펼쳐하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사회주의절정을 펼쳐놓을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인민무력성 부상 유희근중장, 김정관동지, 내각사무장 김영호동지, 속도전 청년 투쟁 대지도국 국장 김영철동지, 조선인민군 사관 최금혁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우리식의 해안도시를 훌륭히 일떠세워 자력자강으로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 오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온 세상에 파시 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자력갱생 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새로운 건설신화, 영웅신화를 다방적으로, 련방적으로 창조창출 함으로써 온 나라가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판월을 위한 투쟁으로 끌어번지게하는데서 갈마전역이 도화선이 되고 거지지 않는 불씨가 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사계획을 치밀하게, 현실성 있게 세우고 섬멸전, 텁체전을 벌려 모든 대상건설을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며 기계화수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애국헌신의 발걸음을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우리의 위력, 우리의 속도, 우리의 기상으로 조국의 아름다운 헤엄개구리에 승리의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겨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절기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언제 건설과 물길굴공사 성과 확대

강원도 안의

군민 발전 소 건설 장들 에서

20여일동안에 새 살림집 및

공공 건물 구획 조성

삼지연 군 꾸리기 건설장에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달고 도안의 군민발전소 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둘레대원들이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언제 멈추우며 10미터 높은 철근콘크리트 중소형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10미터 높은 철근콘크리트 중소형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 계획한 언제공사와 물길굴공사를 등으로 기여하고자 노력과 건설자들을 풀려있으므로 조직적 정신을 품었으며 헌신하였다.

도 군민발전소 건설 휘부의 일군들은 장마철전으로 언제가 배수로 풍크리트 치기와 가을

マイ공사를 기본적으로 끌낼 목표를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폐기하게 해나가고 있다.

문천시 당위원회와 이천, 세포, 평강, 금강, 고성, 회양군당 위원회에서는 언제와 발전기 설공사를 짚은 기간에 끝내도록 노력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이천군과 건설자들이 공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언제

건설비단에서는 공사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단위별 사회주의 경

쟁을 조치하여 건설장이 혁명열,

투쟁 열로 들끓게 하고 있다.

언제건설을 맡은 현두평수역

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

설자들은 다짐기를 비롯한 설비

들의 민기공사를 보장하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이천군대의 일군들과 건설

자들이 발전기설기초굴착과 방

수로 공사파제를 마감단계에서

힘 있게 내밀고 있다.

세포군민발전소 언제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둘레대원들이 강원도

물길굴공사장에서도 역사적

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

언제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이 벌

어지고 있다. 언제건설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벌여

온라인으로 전진되는데 맞

대중적 경쟁을 조직하여 그날

파제를 아낌없이 수행하고 있다.

물길굴건설을 맡은 허민의 일군

들은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

의 하나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합리

적인 공법들을 네리 받아들여 물길

굴착기파제를 아낌없이 수행하고

있다.

철원군대의 일군들과 둘레

군민발전소 건설장을

철석의 의지로 단장약된 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돌격대원들과 조선인민내부

군인건설자들이 17만m³에

달하는 방대한 토량을 짚은

기간에 척리한데 이어 불파

20여일동안 새 살림집 및

공사진입에 앞서 중기계들

의 정상화통에 필요한 부속

물을 충분히 갖추어 놓은

사단운수기통대, 토지정리돌

격대의 전투원들은 불리한

공공건물구획을 정성하는

작업조건에 맞게 통나무로

만든 방울에 굽착기를

올려 놓고 기동로들을 개척하면서

당에 고조시켰다.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철석의 의지로 단장약된 돌

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돌격대원들의 투쟁기풍을 높이

다그쳐 하루에 근 1만m³의

박토를 벌리고 있다.

618건설단을 비롯한 각

려단의 운전사들도 군인들의

투쟁정신과 일본군을 따라

죽기로 했던 철석의 의지로 단

장약된 돌을 높이에서

이바지하였다.

려단의 운전사들과 돌격대

원들은 조선인민내부군 군인건설

자들은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은

자검차수를 잘하고 따라앞서

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의 물길높이 운행길을

다그쳐 하루에 근 1만m³의

박토를 벌리고 있다.

공사진입에 앞서 중기계들

의 정상화통에 필요한 부속

물을 충분히 갖추어 놓은

동계기계들을 보장함으로써

돌격대원들의 만가동을

비로소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

원들은 조선인민내부군 군인건설

자들은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맡은 대상공사를 기어이 완공할

결과판정의 의지를 암고 계속해

나가고 있다.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헤치신 역사의 새벽길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부끄러움을 끌고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

된 신념의 강자들로 하여 그 어디서

나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신념으로 개척되고 신념으로 배전

승리를 아로새운 우리 혁명이

최후승리의 궤도를 따라 폭풍도쳐

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역사의 새벽길과 더불어 및 나는

불묘한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신념과 의지의 한생을 감회깊이 들

어려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

가는 불굴의 의지와 그 어떤 유혹

과 강압에도 끽듯이 맞받아나가는

억센 절개는 혁명적신념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꺾이며 깨워지정 철대로 굽히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신념을 끌끌이

수하는 것은 참다운 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혁명가의 삶의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

나이다.

불교 불의 혁명투사 이 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은 그이제 깨어난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끝까지 헌신하였다.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거제의 참상을 뼈아파 체험하시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 결연히

나서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성스

러운 투쟁에 한몸바쳐 가실 험식의

의지로 가슴 벅차지 헤르고있었다.

보고회들에는 민족선생님의 불굴의

기성이 드겁게 어려운다.

『우리가 2천만 거리를 하나로 묶

어서 세계 일체를 물려치고 나라를 광

복하여면 멀고 힘든 길을 지나 바다

로 가는 샘물처럼 뜻을 멀리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위도 벼랑도 극복하여 꾸준히, 완강히, 헌신하여 하였던가.

우리가 걸는 짐의 길은 험난할 것이요, 피어린 투쟁을 각오하고 값 비싸게 각오해야 하오. 그러나 나는 이미 조국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 기로 결심하였소.』

김형직선생님께서 간단히 너사께 하신 이 말씀은 곧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신 선생님의 신념의 맹세였다.

하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시련에 친 투쟁의 길에서 부닥치는 만난 시련을 두려워 울없이 맞았거나 아니하였다.

돌이켜보면 날강도 일제에게 강토를 빼앗긴 후 국진회복과 민족적독립을 이루어 위한 우리 민족의 필사의 투쟁은 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하여 쏙라린 실례만을 거듭하였다.

수년의 시대는 온 민족을 투쟁에

향도로 나갈 울바른 지도적지침을

목표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제시하면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지

나야 할 혁명적인 생활, 백정불굴의 혁명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시었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항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

참여한 혁명투사들은 대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참여한 혁명투사들은 대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

시련에 친 투쟁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판, 대로 이어가며 쏙라서라도</p

공화국의 기적파와 승리와 번영의 70년

북방의 공업지대에 새겨진 위대한 전변의 역사

자력자장으로 비약의 활로를 열어 제낀 함경북도를 돌아보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추를 이루는 굴지의 중공업기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북도이다.

나라의 자립경제를 얹척같이 떠받들며 공화국력사의 경과마다에 승리와 영광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전면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북북도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대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두차례의 공작

을 풀어놓던 수년많던 땅이었다.

그러던 함북땅이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천지개벽하였다. 펼펼 휘날리는 탐홍색 공화국기와 더불어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전면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북북도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대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두차례의 공작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얼마나 명실공히 우리의 것인 주체의 블은 쇠였다.

현대적인 산업전략을 사랑하며 솟은 산소열법용광로와 시원하게 뱉은 원료로 장관과 발전기설, 압축기설, 하늘높이 솟아오른 산소분리탑들…

규모로 보나 장비와 기술수준으로 보나 하나의 큰 기업소와 맞먹는 거창한 창조물을 날마다 불과 25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하여 단번 드롭지 않을 주제조선의 강철기동을 얹척같이 놀라운 기적으로 북방의 민음직한 공업기지로 전변된 함경북도의 경제적 잠재력과 눈부신 혁신의 혁신의 블길인 라님의 불꽃을 지펴올려 공화국의 혁신에 차운스러운 폐기물들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본연의 전력생산기지들도 돌아보았다.

해방전 대륙침략에 미쳐 날뛰던 일제가 수원이 풍부한 물줄기가 텁이나 폭포를 벌려놓았는 했으나 끝내 맥이 진하여 주지 않고 말았다는 서두수가 오늘은 험난한 형세를 바꾸어 물길을 따라 흐름을 비구어 그 이름도 『동두수』로 불리우며 귀중한 전기력을 일으키는 보배강이 되어 천지개벽의 자랑찬 현장을 노래하고 있었다.

물원천이 풍부한 어탁원의 상류에 위치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찰의 길에서 김철로통제급이 창조한 영웅적 투쟁과 빛나는 위훈의 기념비였다.

용광로의 출선장에 들어서니 출선 준비가 한창이었다.

잠시 후 다급히 올리는 종소리와 함께 용광로의 출선구가 터졌다. 순간 수천만개의 철정광을 생산하여 자립경제의 토대축성을 기여하였다 사실에 누군가 가슴들먹여 나날이 성장하였다.

해방후에 비하여 생산능력이 비할 바없이 늘어난 이 기업소가 지난 70년간 1억 수천만개의 철정광을 생산하여 자립경제의 토대축성을 기여하였다 사실에 누군가 가슴들먹여 나날이 성장하였다.

한들을 치뤄야만 솟아오른 용광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찰의 길에서 김철로통제급이 창조한 영웅적 투쟁과 빛나는 위훈의 기념비였다.

용광로의 출선장에 들어서니 출선 준비가 한창이었다.

잠시 후 다급히 올리는 종소리와 함께 용광로의 출선구가 터졌다. 순간 수천만개의 철정광을 생산하여 자립경제의 토대축성을 기여하였다 사실에 누군가 가슴들먹여 나날이 성장하였다.

『출신 할 때마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주제식물로 보시려 금시되도 오실것만 같아 가슴들먹이는 저희들입니다.』

산소열법용광로장장의 말이었다.

일찌기 주제식물로 신봉하는 사람은 주제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교시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김철을 찾으시여 폭스와 리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폭스가 죽었다고 생각하여야

사회주의 문명은 생활의 갈피마다에

명현원에서 박달령을 넘어 1300리 정도 가기까지 동해기슭에 자리잡은 황진온천마을이 나왔다.

나지막한 산기슭에 놀이터를 건설할 때마다 철강제조와 철강제련, 문화회관과 황진온천진료소, 메기공장 등 특색으로 건설된 공공건물들, 활짝 피어나고 그윽한 향기로 풍기는 복숭아와 배, 백살구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의 꽃속에 묻힌 마을은 아름다운 천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이곳에서 한생을 살아온다는 한로인은 해방전에는 영광을 만들고 벼짓조차 없어 가슴을 쥐어풀던 이곳 동민들이 오늘은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쓰고 살면서 만복을 누리고 있다고 추억깊이 이야기하였다.

해 철보의 외진 산기슭에 있는 이 자그마한 마을에도 절세위인의 사랑의 발자취가 새겨져있다.

9년전 9월 새제주에 황진온천마을을 찾으시여 한적하면 비단가마을이 사회주의의 선정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쿠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던 어버이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이곳 사람들의 심장속에 오늘도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남파선에 일파선 현대적인 살

림집들에 깃든 사연은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끌어들였던가.

광장길에서 피어오르는 한점의 연기라도 홀려들어 새로 건설될 주택지구를 두고 그리고 마음쓰시며 오래동안 아끼고 있다.

나라의 민음직한 기계제작기지인 라남련왕기계련합기업소에 대한 기행길을 이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강렬하게 느낄수 있었다. 해방전에는 몇대의 낡은 선반과 불반을 가지고

있던 보잘것 없던 철공소가 로동당시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하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기업소는 쌍원통제한기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철제설비와 대상설비들을 마련하여 대로 척적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본보기기업으로 전변되었고 『1985년 6월 공작기계제작기기운동』을 전국에 호소한데 이어 새 세기의 첫 해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인 라남의 불꽃을 지펴올려 공화국의 혁신에 차운스러운 폐기물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본연의 전력생산기지들도 돌아보았다.

해방전 대륙침략에 미쳐 날뛰던 일제가 수원이 풍부한 물줄기가 텁이나 폭포를 벌려놓았는 했으나 끝내 맥이 진하여 주지 않고 말았다는 서두수가 오늘은 험난한 형세를 바꾸어 물길을 따라 흐름을 비구어 그 이름도 『동두수』로 불리우며 귀중한 전기력을 일으키는 보배강이 되어 천지개벽의 자랑찬 현장을 노래하고 있었다.

물원천이 풍부한 어탁원의 상류에 위치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찰의 길에서 김철로통제급이 창조한 영웅적 투쟁과 빛나는 위훈의 기념비였다.

일반강과 특수강들, 쇠바.Decode에 이르기까지 어버이 강철제품들을 꽁꽁 생산하여 자립적아금공업의 위력을 민음직하게 담보하는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첨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역자강의 기치높이 더욱 번영할 조국의 빼일을 가슴뿌듯이 얻어보게 되었다.

어찌 김철뿐이랴.

일반강과 특수강들, 쇠바.Decode에 이르기까지 어버이 강철제품들을 꽁꽁 생산하여 자립적아금공업의 위력을 민음직하게 담보하는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첨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역자강의 기치높이 더욱 번영할 조국의 빼일을 가슴뿌듯이 얻어보게 되었다.

나라의 민음직한 기계제작기지인 라남련왕기계련합기업소에 대한 기행길을 이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강렬하게 느낄수 있었다. 해방전에는 몇대의 낡은 선반과 불반을 가지고

탄차바퀴와 선반부속품이나 생산하던 보잘것 없던 철공소가 로동당시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하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기업소는 쌍원통제한기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철제설비와 대상설비들을 마련하여 대로 척적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본보기기업으로 전변되었고 『1985년 6월 공작기계제작기기운동』을

전국에 호소한데 이어 새 세기의 첫 해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인 라남의 불꽃을 지펴올려 공화국의 혁신에 차운스러운 폐기물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본연의 전력생산기지들도 돌아보았다.

해방전 대륙침략에 미쳐 날뛰던 일제가 수원이 풍부한 물줄기가 텁이나 폭포를 벌려놓았는 했으나 끝내 맥이 진하여 주지 않고 말았다는 서두수가 오늘은 험난한 형세를 바꾸어 물길을 따라 흐름을 비구어 그 이름도 『동두수』로 불리우며 귀중한 전기력을 일으키는 보배강이 되어 천지개벽의 자랑찬 현장을 노래하고 있었다.

물원천이 풍부한 어탁원의 상류에 위치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찰의 길에서 김철로통제급이 창조한 영웅적 투쟁과 빛나는 위훈의 기념비였다.

일반강과 특수강들, 쇠바.Decode에 이르기까지 어버이 강철제품들을 꽁꽁 생산하여 자립적아금공업의 위력을 민음직하게 담보하는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첨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역자강의 기치높이 더욱 번영할 조국의 빼일을 가슴뿌듯이 얻어보게 되었다.

나라의 민음직한 기계제작기지인 라남련왕기계련합기업소에 대한 기행길을 이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강렬하게 느낄수 있었다. 해방전에는 몇대의 낡은 선반과 불반을 가지고

말을 심어 반말을 거두어들이고는 반두라는 이름만 남기었던 명간덕에 오들은 백리청춘파원이 펼쳐졌다.

천어리 해안선을 따라 길을 이어 가면서 우리는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했던 함북도의 수산업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올라섰는가를 느끼게 되었다.

70여년전 창설당시 4척의 자작기만 기관선과 배수뿐이었던 김책수산사업소가 오늘 수많은 현대적인 고기배와 배수업체들이 차운수로 높아났으니 인민이 부르는 무명의 노래, 『세월이 가보라지』의 노래소리의 어디서나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경제와 문화분야에서 이루어고 있는 눈부신 전면화 함께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과 사상정신적풍모도 물려보게 달려졌다.

해방전에 『두미지인생』으로 베릴란트에 미쳐 날뛰던 일제가 수원이 풍부한 물줄기가 텁이나 폭포를 벌려놓았는 했으나 끝내 맥이 진하여 주지 않고 말았다는 서두수가 오늘은 험난한 형세를 바꾸어 물길을 따라 흐름을 비구어 그 이름도 『동두수』로 불리우며 귀중한 전기력을 일으키는 보배강이 되어 천지개벽의 자랑찬 현장을 노래하고 있다.

김책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수산기지들마다에서 현대적인 고기배들이 날을 따라 놓이고 『바다 민족』의 노래속에 실려온 경제주주의비단화기는 이르는 곳마다 넘쳐나 인민들에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오늘의 김기동-김정일-김정일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하고 당에서 결심만 하면 무조건 해내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투철한 혁명의 담당자들로 자기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하였다.

마천령기슭에 서자 지나온 길들을 더듬어 볼수록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함경북도를 나와의 민음직한 기간공업지대로, 인민의 력원으로 꾸렸던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하고 당에서 결심만 하면 무조건 해내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투철한 혁명의 담당자들로 자기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하였다.

해방전 대륙침략에 미쳐 날뛰던 일제가 수원이 풍부한 물줄기가 텁이나 폭포를 벌려놓았는 했으나 끝내 맥이 진하여 주지 않고 말았다는 서두수가 오늘은 험난한 형세를 바꾸어 물길을 따라 흐름을 비구어 그 이름도 『동두수』로 불리우며 귀중한 전기력을 일으키는 보배강이 되어 천지개벽의 자랑찬 현장을 노래하고 있다.

물을 심어 반말을 거두어들이고는 반두라는 이름만 남기었던 명간덕에 오들은 백리청춘파원이 펼쳐졌다.

천어리 해안선을 따라 길을 이어 가면서 우리는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했던 함북도의 수산업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올라섰는가를 느끼게 되었다.

70여년전 창설당시 4척의 자작기만 기관선과 배수뿐이었던 김책수산사업소가 오늘 수많은 현대적인 고기배와 배수업체들이 차운수로 높아났으니 인민이 부르는 무명의 노래, 『세월이 가보라지』의 노래소리의 어디서나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경제와 문화분야에서 이루어고 있는 눈부신 전면화 함께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과 사상정신적풍모도 물려보게 달려졌다.

해방전에 『두미지인생』으로 베릴란트에 미쳐 날뛰던 일제가 수원이 풍부한 물줄기가 텁이나 폭포를 벌려놓았는 했으나 끝내 맥이 진하여 주지 않고 말았다는 서두수가 오늘은 험난한 형세를 바꾸어 물길을 따라 흐름을 비구어 그 이름도 『동두수』로 불리우며 귀중한 전기력을 일으키는 보배강이 되어 천지개벽의 자랑찬 현장을 노래하고 있다.

김책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수산기지들마다에서 현대적인 고기배들이 날을 따라 놓이고 『바다 민족』의 노래속에 실려온 경제주주의비단화기는 이르는 곳마다 넘쳐나 인민들에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오늘의 김기동-김정일-김정일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하고 당에서 결심만 하면 무조건 해내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투철한 혁명의 담당자들로 자기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하였다.

마천령기슭에 서자 지나온 길들을 더듬어 볼수록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물을 심어 반말을 거두어들이고는 반두라는 이름만 남기었던 명간덕에 오들은 백리청춘파원이 펼쳐졌다.

천어리 해안선을 따라 길을 이어 가면서 우리는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했던 함북도의 수산업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올라섰는가를 느끼게 되었다.

70여년전 창설당시 4척의 자작기만 기관선과 배수뿐이었던 김책수산사업소가 오늘 수많은 현대적인 고기배와 배수업체들이 차운수로 높아났으니 인민이 부르는 무명의 노래, 『세월이 가보라지』의 노래소리의 어디서나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경제와 문화분야에서 이루어고 있는 눈부신 전면화 함께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과 사상정신적풍모도 물려보게 달려졌다.

해방전에 『두미지인생』으로 베릴란트에 미쳐 날뛰던 일제가 수원이 풍부한 물줄기가 텁이나 폭포를 벌려놓았는 했으나 끝내 맥이 진하여 주지 않고 말았다는 서두수가 오늘은 험난한 형세를 바꾸어 물길을 따라 흐름을 비구어 그 이름도 『동두수』로 불리우며 귀중한 전기력을 일으키는 보배강이 되어 천지개벽의 자랑찬 현장을 노래하고 있다.

김책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수산기지들마다에서 현대적인 고기배들이 날을 따라 놓이고 『바다 민족』의 노래속에 실려온 경제주주의비단화기는 이르는 곳마다 넘쳐나 인민들에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오늘의 김기동-김정일-김정일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하고 당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간다

국가과학원에

실력 가대력을 튼튼히 꾸리는데 모를 박고

동력 기계 연구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으로 선을 펼쳐나가는데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사업성과가 보통된다.

이들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장을 더 밟고 정중히 모시는데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어려운 험경에서 기쁨을 드렸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제 1 2 2 호 양묘장과 삼천미터 고공장을 비롯하여 나라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우리식의 창조물을 알리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다면 연구소가 최근 2~3년 사이에 많은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과학기술강국을 떠나고나 갈 과학기술인재대열을 꾸리고 그들의 연구개발능력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오늘 동력기계연구소의 20대, 30대의 젊은 연구사들은 그 어떤 연구제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실력을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연구소의 든든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소에 평생 실력을 대량으로 푸른것, 바로 이것이 이웃 일군들의 사업성과이며 연구소가 최근에 많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비결로 되고 있다. 이것은 쉽게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사실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실장들이 연구파제를 책임지고 맡아 수행하였다. 연구소에 연구파제가 제기되면 본래 당

장들에게 달기는 것이 판례화되거나 한명의 실장의 어깨 위에 걸어지워진 연구파제가 보통 2~3건이었고 지어는 그 이상이 때도 있었다.

김봉일소장은 관록있는 연구파제들에게 책임지고 수행하다니 있었지만 이 개개인은 학제적 연구파제를 드렸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제 1 2 2 호 양묘장과 삼천미터 고공장을 비롯하여 나라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우리식의 창조물을 알리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루어낸 것은 연구사들이 실에서 밭거주는 파제를 수행하는 만 습관된다. 연구사업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열의가 높지 못한 것인가?

연구소에서는 예 실들에서 3 0 대 안팎의 연구사들을 뽑아서 연구집단을 편성하였다.

중요한 대상파제에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높지 못한 젊은 연구사들을 당시 시켰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갓 배치되어 연구소사업을 묘해하는 파제에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한 김봉일소장의 생각은 깊어졌다.

〈젊은 연구사들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아둔다면 그들은 언제 가도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로 될 수 있다. 새롭게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그들의 장점을 살려준다면 얼마든지 생활에 활용되는 기술과 품질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을 믿고 대답하게 연구파제를 달겨주자.〉

바로 이러한 때 동력기계연구소에는 조선인민군 제 1 2 2 호 양묘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일부 생산공정들을 우리식으로 확립할 때 대 한 파업이 되고 있다.

연구파제를 수행해야 할 기간은 불과 몇 달이었다. 한 번도 해

본 경험에 없는 조건에서 파제

를 당당한 연구사들의 비상한 각오와 실력이 없이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김봉일소장은 관록있는 연구파제에게 연구파제를 맡길 수도 있었지만 이 개개인은 학제적 연구파제를 대단히 믿고 분발시키며 실력을 한계단 높이는 실천과정으로 되게 할 것을 결심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예 실들에서 3 0 대 안팎의 연구사들을 뽑아서 연구집단을 편성하였다.

중요한 대상파제에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높지 못한 젊은 연구사들을 당시 시켰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이들은 연구파제를 책임지면서 한껏 계발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습관된다면 연구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다.

</

